

광주 양궁 '미녀 4총사' 실력도 최고

화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
개인·단체·50m 대회신기록
30m에선 금·은·동 휩쓸어

신기록 제조기 광주시 양궁선수단이 화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개인·단체·거리(50m) 종목에서 3개의 기록을 다시 썼다.

광주 양궁의 간판 기보배(광주시청) 최근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제31회 올림픽 제패기념 화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거리별 종목 50m에서 347점을 쏘아 신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06년 정창숙이 세운 346점으로, 8년 만에 새 역사를 쓴 것이다.

그는 30m와 60m에서 각각 357점, 350점을 획득해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기보배는 또 개인전과 단체전 예선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는 개인전 예선에서 1391점을 쏘아 종전



왼쪽부터 최미나, 김소연, 이소현, 기보배.

1382점보다 무려 9점을 더 획득했다.

또 단체전에서도 김소연·최미나·이소현과 함께 출전해 4126점을 합작, 2006년 세운 4116점보다 10점을 더 끌어올리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팀 동료인 최미나는 30m에서 358점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50m에서도 345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소연은 30m에서 동메달을 땀다. 이로써 광주시청은 30m에서 금·은·동 메달을 쏘았으며, 최상의 실력을 과시했다.

박재순 감독은 "광주 양궁선수단이 3개의 대회 신기록과 30m에서 금·은·동을 쏘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올림픽 라운드 개인·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유도 기대주 김성연, 인천AG 대표 선발

<광주도시철도>

KBS배 전국 선수권 대회 우승

무실점 경기로 AG메달 '청신호'

한국 여자 유도 의 기대주 김성연(광주도시철도 공사·사진)이 전국 체급별 유도대회에서 금메달 메치기에 성공하며, 인천아시아게임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성연은 25일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KBS 전국체급별 선수권대회' 여자 70kg급 결승에서 황예슬(안산시청)을 상대로 우세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2014 세계선수권대회 및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겸해 진행됐다.

김성연은 전 경기에서 실점을 하나도 하지 않는 퍼펙트 우승을 했다. 1회전에서 박은지(충북도청)를 우세승으로 눌렀고, 2회전에서는 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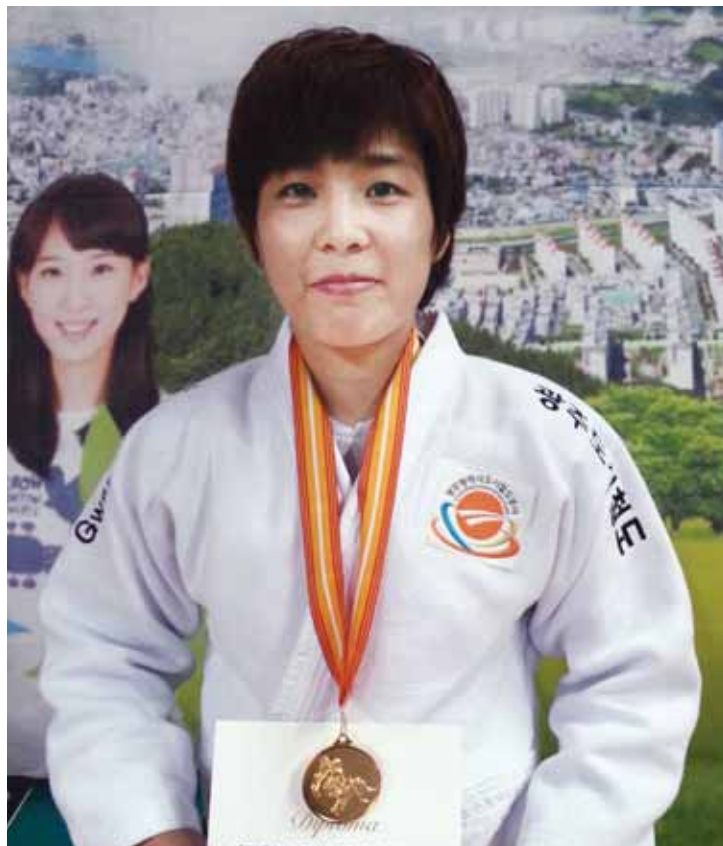
(성동구청) 절반승으로, 준결승과 결승에서는 황예슬을 만나 각각 유효승과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메웠다. 황예슬은 2013 카잔 유니버시아드대회 2관왕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2번의 연장전 끝에 통쾌하게 우승했다.

김성연은 이로써 지난 3월 여명경 우승에 이어 시즌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오는 9월 태극마크를 달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다.

김성연은 "고향팀 입단과 소속·차량 등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열광광주유도회장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지난 몇 달간 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훈련을 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선수단은 지난해 3월 장단했고, 최원 감독과 3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덕아웃 말 말 말



울스타 선수단 투표를 마친 KIA 나지환.

울스타 투표 마친 김민우 "친정팀이 생각나네요"

▲"친정팀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25일 훈련에 앞서 선수들이 인터뷰실에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았다. 배트가 아닌 펜을 든 선수들은 시험을 치르듯 한참 고민을 하며 칸을 채워나갔다. 평소 볼 수 없었던 진지한 장면. 선수단 울스타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KBO(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올 시즌 울스타를 선발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선수단 투표를 도입했다. 팬투표와 함께 선수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별 중의 별'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낮선 투표지만 선수들의 반응은 좋았다. 귀중한 표를 행사했다는 듯 뿌듯한 표정으로 투표장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심동섭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매번 투표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며 여유를 보

였다. 강한울의 선택에는 '학연'이 있었다. 강한울은 "학교 선배들을 찾아서 먼저 뽑아드렸다. 내가 평소 좋아하던 선배님들도 우선 고려했다"고 선택 기준을 밝혔다. 넥센에서 KIA로 이적한 김민우는 친정팀에 마음이 갔다. 김민우는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하니까 좋다. 아무래도 나는 친정팀 선수들을 챙기게 되더라"며 웃었다.

▲"노히트보다는 퍼펙트 생각이 더 많아."

지난 24일 NC 투수 찰리가 LG를 상대로 9이닝 3볼넷 7탈삼진의 무결점 투구를 선보이며 프로야구 역사에 11번째 노히트 노런을 남겼다. 25일 KIA 덕아웃에서도 노히트노런이 화제가 됐다. 선동열 감독도 1989년 7월6일 삼성을 상대로 노히트노런

을 장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선 감독에게는 노히트 노런의 기억보다는 퍼펙트를 놓친 기억이 더 많다. 선 감독은 "1986년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당시 아웃카운트 4개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파울을 치면서 승부가 길어졌다. 변화구를 던졌는데 맞는 순간 게임이 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2-0으로 이기고 있다가 2실점을 하면서 완봉승도 날아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선 감독의 퍼펙트를 막은 이는 전설적인 좌타자 장호조. 유독 자신에게 약했던 상대였기에 선 감독에게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기억이다. 선 감독은 "14년 만에 기록이 나왔으니 크게 축하할 일이다"며 찰리에게 축하 인사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하이트진로배 보치아 대회

27~29일 호남대서 개최

16개 시·도 340여명 참가

제2회 하이트진로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하고 하이트진로와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관해 치르는 이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40여명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가 참가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는 4개 세부 종목(BC1-1등급 상지·2등급 하지 사용, BC2-2등급 상지 사용, BC3-혼용 사용, BC4-상지 사용) 개인전으로 열리며, 운영은 리그전으로 펼쳐진다. 중증장애인의 유일한 스포츠로 남녀 구분없이 혼성경기로 치러진다. 시·도별로 4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광주는 개최지여서 5명까지 출전한다.

이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를 널리 알리고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자변확대를 통한 상호



성동욱 회장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했다.

보치아 경기는 그리스의 공단지기에 유래한 것으로, 볼링과 유사하다. 규정은 뇌성마비 1·2등급의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해 경기를 펼치는 것이지만, 중증이 아닌 뇌성마비 장애인과 노인들의 동계스포츠와 정신지체 놀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성동욱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은 "장애인 경기인 보치아는 선수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참가한다"며 "340여명이 사용한 광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5일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에서 택견 강습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생활체육회, 전통놀이 명맥 잇는다

내달까지 택견 등 강습회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장준)가 택견·줄다리기 등 전통종목의 명맥을 잇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생활체육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광주지역 유소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국학기공·택견·줄다리기 등 전통놀이 강습회를 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강습은 전통 스포츠·놀이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전통종목 활성화와 자변 인구를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택견은 하남중앙초(6월25일)와 송학초(7월3일), 대촌중앙초(7월10일), 어등초(7월15일), 태봉초(7월16일)에서 진행된다. 국학기공은 대촌중앙초(7월7일)에서, 줄다리기는 비야초(7월22일)에서 열린다.

김장준 회장은 "전통종목 강습회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종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유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이 아닌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FC 임선영 베스트 11 선정

K리그 챌린지 15라운드

광주 FC 임선영(사진)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임선영은 25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5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임선영은 앞선 수원 FC와의 원정에서 득점을 올리는 못했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팀 공격을 이끌었다.

평가위원회는 임선영에 대해 "최전방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격수로 변신해 팀의 모든 공격 과정에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광주는 임선영의 부지런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6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1899-0240